



신 지급여력제도와 자본관리 다변화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 2022년부터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 자본관리(Capital Management) 수단의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짐
 - 최근까지 보험회사는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자본관리에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향후 K-ICS 도입 대비 선제조치가 시행되면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61.9%를 기록함
 -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현행 자본관리 방식을 보다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보험회사는 내부 이익잉여금 창출, 금리변화에 대한 채권재분류, 장기 국채 매입,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을 활용해왔음
 -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 중 채권재분류는 가용자본 확충에 크게 기여함
 - 또한 장기 국채 매입 확대는 금리위험을 축소하여 요구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최근에는 자본집약도가 낮은 금리연동형 또는 보장성 상품 확대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이 활용됨
- 그러나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은 충분한 여유자본(가용자본과 요구자본과의 차이)을 갖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으나 여유자본이 희소한 경우에는 그 한계가 있음
 - K-ICS 제도에서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또한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평가익에 의존하는 자본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여유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보다 선진화된 자본관리-재보험의 활용,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 파생금융상품 활용을 통한 요구자본의 경감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용자본을 확충함과 동시에 요구자본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Monetization)는 미래에 발생하는 보험이익을 할인된 현재가치의 금액으로 유통화하여 가용자본을 신규로 창출하는 것임

1. 검토배경



- 2022년부터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 자본관리(Capital Management) 수단의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짐
 -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험회사는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자본관리에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향후 K-ICS 도입에 대비한 선제조치¹⁾가 시행되면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61.9%로 최저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²⁾
 - 이는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에 비해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이 충분함을 시사함
 -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기타 차감항목으로 구성됨³⁾
 -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리스크는 보험·금리·시장·신용·운용리스크 등으로 분류됨
 - 최근 몇 년간 보험회사는 충분한 여유자본(Free Surplus; 가용자본 - 요구자본)을 갖고 있어 자본관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K-ICS 도입에 대비한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로 최근 여유자본이 줄어들고 있음
 - 자본관리란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가용자본),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요구자본)에 관한 것임
- 보험회사는 여유자본을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여유자본이 희소한 경우에는 수익창출능력이 제한됨
 -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고, 자산운용에 투입할 자본이 부족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 악화될 수 있음
 - 2022년에 도입될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 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대폭 축소되거나 요구자본이 확대되어 RBC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자본관리 대책을 보다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향후 K-ICS 제도 도입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선진화된 자본관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1) 금감원 필드테스트의 비공식적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대폭 하락한다는 추정치가 제시됨
 2) RBC 비율 100% 미만 시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 요구, 0% 미만 시에는 경영개선 명령이 요구대상임
 3) 기본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자기자본 25% 이내 금액) 등으로, 보완자본은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자기자본 25% 초과 금액) 등으로, 기타 차감항목은 영업권, 미상각신계약비,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등으로 각각 구성됨

2. 현행 자본관리의 특징과 한계점



가. RBC 제도의 현황

- RBC 제도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된 후 국제적 감독 강화 흐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이후 K-ICS 제도로 대체될 예정임(부록 <표 1> 참조)
 - RBC 제도의 도입 초기(2011년 4월)에는 국내 보험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국제적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후 국제적 감독 강화 흐름에 맞춰 단계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해왔음
 - 2014년~2016년 10월에 걸쳐 금리위험 및 신용위험 측정 시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 2017년 5월에는 K-ICS 도입 이전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 확대, 연동형보험 공사이율 현실화,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 변경,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리스크 반영 등 제도를 개선함
 - 2018년 4월에는 IFRS 17 도입에 대비하여 한국형 지급여력제도인 K-ICS(1.0) 초안을 마련하였음
 - K-ICS의 도입목적은 자산 및 부채(책임준비금)의 완전 시가평가이며,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5%로 상향하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할 계획임
- 전체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012년 12월 말 317.4%에서 2018년 9월 말 261.9%로 하락세를 보임 (<그림 1> 참조)

<그림 1> 보험회사 RBC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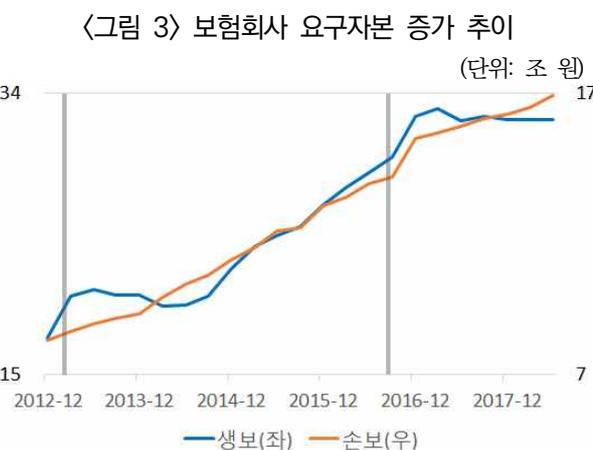
주: 2012년 12월 말~2018년 6월 말 분기별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RBC 비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보험회사 자본관리의 일환인 가용자본 확충 노력에 비해 요구자본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임(그림 2, 3) 참조

- 전체 보험회사 가용자본의 연평균 증가율은 8.9%, 요구자본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으로 요구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RBC 비율은 하락함
 - 생명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증가율(8.3%)과 요구자본 증가율(13.0%)보다 손해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증가율(10.4%)과 요구자본 증가율(14.7%)이 전체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주: 2012년 12월 말~2018년 6월 말 분기별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2012년 12월 말~2018년 6월 말 분기별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2년부터 최근까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요구자본을 관리하기보다는 채권재분류,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가용자본의 확충에 보다 집중하였음

- 보험회사는 RBC 비율의 안정기(2013년 6월~2016년 9월)에는 주된 가용자본 관리수단으로 금리변화에 대한 채권재분류 전략을, RBC 비율 하락기(2016년 12월~현재)에는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의존해왔음
- 한편, 요구자본 관리 수단으로는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특히 하락기에는 자본집약도가 낮은 금리연동형 상품 또는 보장성 상품 도입을 통해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방식도 활용함
 - 장기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자산의 듀레이션을 확대하고, 금리연동형 상품 도입으로 부채 듀레이션을 축소하여 요구자본을 경감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지금까지의 자본관리는 요구자본 관리보다는 금리변화에 대한 채권재분류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가용자본 확충에 보다 집중하였음

■ 이하에서는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전략을 기간별, 그리고 자본특성별(가용자본 및 요구자본)로 살펴보고자 함

1) 가용자본의 관리⁴⁾

■ RBC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시기(2013년 6월~2016년 9월)에는 금리하락으로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가용자본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동 기간 동안 전체 보험회사 가용자본의 연평균 증가율은 15.3%, 요구자본의 연평균 증가율은 14.1%로 가용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 가용자본의 확대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의 증가에 기인함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하 'OCI'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90~95%)을 차지함

■ 한편 OCI의 증가는 금리하락기에 보험회사의 채권재분류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보험회사는 동 기간 동안에 금리 하락을 예상하여 보유채권을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여 실제 금리하락에 따른 평가이익을 자본화함으로써 가용자본을 증가시켰음
- 마찬가지로 2016년 하반기에 금리상승이 예상되자, 분류제한 기간⁶⁾이 지난 보유채권을 다시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채권으로 재분류함으로써 평가손실을 미평가하여 가용자본을 보존하는 전략을 사용함⁷⁾

■ 동 기간 동안 보험회사의 채권재분류 전략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OCI와 10년 국채금리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그림 4, 5) 참조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는 각각 -0.95, -0.92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4) 가용자본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이익 및 배당정책을 통한 이익잉여금,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확충될 수 있음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Accumulated OCI)은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 계산 시에는 제외되지만 포괄손익에는 포함되는 항목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변동으로 구성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의 만기보유금융자산에 적용하는 분류제한 규정(Tainting Provisions)에 따르면,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현재는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을 인식 및 측정하지만, 제1104호의 한시적 면제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한해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제1039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그러나 금리에 대한 예상이 실제 금리 방향과 일치될 경우에만 채권재분류 전략의 효력이 발생함. 예컨대, 금리상승을 예상하여 보유채권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는데 실제 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자산 처분에 제약을 가져와 자산과 부채 간 만기 불일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그림 4〉 생명보험회사 OCI와 금리 추이



주: 2012년 12월 말~2018년 6월 말 분기별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연합뉴스포맥스

〈그림 5〉 손해보험회사 OCI와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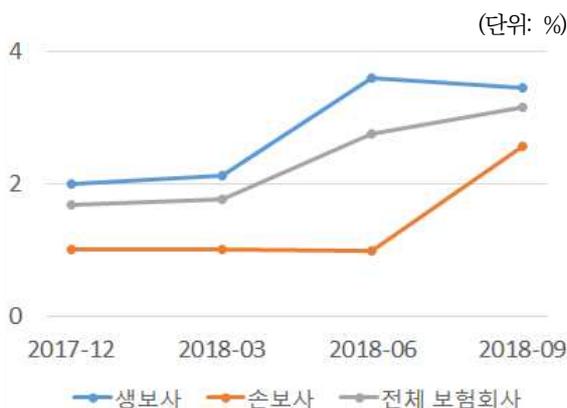


주: 2012년 12월 말~2018년 6월 말 분기별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연합뉴스포맥스

■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016년 12월에 신용위험 신뢰수준 상향 등 회계 및 감독제도의 강화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신종자본증권 발행 확대 조치로 다시 상승함(그림 1, 6) 참조)

- 2016년 10월부터 RBC 비율 산정 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회사 자회사의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요구자본이 늘어나 RBC 비율이 하락함
 - 신용위험액 산출 시 신뢰수준이 97%에서 99%로 2차 상향조정되어 요구자본 산출 기준이 강화됨⁸⁾
- 2017년 5월에는 RBC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RBC 비율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요구자본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종자본증권⁹⁾ 발행 확대로 가용자본의 증가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그림 6〉 가용자본 중 신종자본증권 비중 추이



주: 2017년 12월 말~2018년 6월 말 분기별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8) 2015년에 신용위험액 산출 신뢰수준이 95%에서 99%로 1차 상향이 이루어짐
 9)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증권의 일종으로 일정 요건하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됨. 2016년 12월부터 보험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여 2018년 9월 말 기준 6개의 생명보험회사(DB, 교보, 한화, 현대라이프, 흥국, KDB)와 5개 손해보험회사(롯데, 한화, 흥국, 코리아나, 현대해상)가 발행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신종자본증권 발행 확대로 전체 가용자본 중 신종자본증권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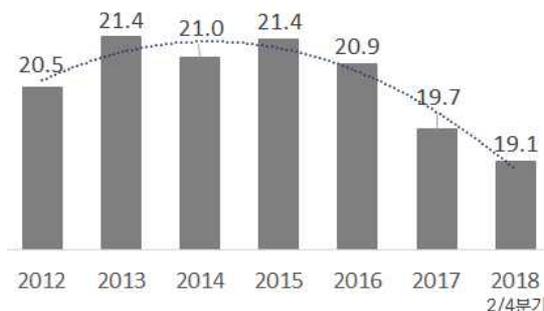
- 전체 가용자본 중 신종자본증권의 비중은 전체 보험회사 잔액 기준으로 2018년 9월 말 현재 4% 미만이나 최근 들어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임(부록 <표 2> 및 <그림 6> 참조)
 - 신종자본증권은 2016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상시 발행이 허용된 후 발행물량이 증가하여 2018년 9월 말 기준 전체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잔액은 4조 1,123억 원임
 - 후순위채권¹⁰⁾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RBC 악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 보험회사에서 1조 9,336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신규 발행함

2) 요구자본의 관리

■ 보험회사는 RBC 비율 안정기에는 요구자본 관리에 수동적이었으나, RBC 비율 하락기에는 장기국채 매입을 확대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금리위험 및 시장위험을 각각 관리함

- 보험회사는 장기국채를 매입하여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함으로써 금리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RBC 비율 하락기에는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동산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용리스크를 경감함
 - 전체 보험회사의 보유 부동산은 2018년 6월 말 기준 19조 1,177억 원으로 2015년과 비교하여 2조 원 넘게 줄어들었음(<그림 7> 참조)
 - 기존 RBC제도에서 (투자)부동산은 신용위험액의 측정대상으로 위험계수가 9%로 적용되었으나, K-ICS 초안에서는 부동산이 신용위험액이 아닌 충격시나리오 방식(부동산 가격의 25% 하락)에 의한 시장위험액으로 측정되며, 현행 RBC에 비해 더 높은 요구자본액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7> 전체 보험회사 보유 부동산 추이
(단위: 조 원)



주: 12월 말 자료 기준, 2018년은 6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0) 후순위채권은 채권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일반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채권임. 후순위채권의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일 경우에는 가용자본 인정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됨

나. 현행 자본관리 기법의 한계점

■ 보험회사의 현행 자본관리 기법은 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K-ICS 체제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채권재분류는 가용자본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K-ICS 제도에서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또한 시가평가대상이므로 채권재분류를 통해 자산평가액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 둘째, 저금리에서 장기국채 매입은 듀레이션 확대를 통해 요구자본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낮은 운용수익률로 인해 가용자본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 셋째, 자본집약도가 낮은 금리연동형 및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는 요구자본을 경감시키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여유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에 따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한계가 있음
 - 여유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K-ICS 체제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자본관리 기법을 보다 선진화된 방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표 1) 참조

- 대주주를 포함한 유상증자는 자본금 규모를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은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 또는 배당을 하향조정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으나 성숙 경제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확보하기는 제한적임
 - 이익은 인건비 절감,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창출되지만, 지속가능한 이익은 보험사업 및 투자 영업이익을 통해 확보됨
 - 주어진 이익 가운데 배당률 하향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낮은 배당률은 주주 친화적이지 않으므로 배당률 하한선이 존재함
- 일반계정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또는 특별계정 비중 확대를 통해 보험 위험프로파일(Risk Profile)을 재구축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임
 - 일반계정에서도 금리확정형 대신 금리연동형을, 그리고 저축성 상품 대신 보장성 상품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인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음
 - 보험사업 부분을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후자(변액보험 및 연금)가 상대적으로 요구자본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본집약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3. 새로운 자본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



- 선진화된 자본관리 방안으로 재보험(Reinsurance)의 활용,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Monetization), 금리위험 관리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용 등이 있음(〈표 1〉 참조)

〈표 1〉 자본관리수단의 변천 과정 및 향후 전망

구분	자본의 분류	RBC 비율 안정기	RBC 비율 하락기
전통적 기법	가용자본 확충	·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창출 : 유상증자, 배당률 · 채권재분류: 만기보유 → 매도 가능	· 채권후순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구자본 경감	· 장기국채 매입	· 장기국채 매입 및 부동산 매각 : 금리위험 및 신용위험 경감 · 보험 위험 프로파일 재구축 : 특별계정(변액) 비중 확대 · 금리연동형 및 보장성 상품 도입
선진화 기법	가용자본 확충 및 요구자본 경감	· 재보험(Reinsurance) 활용: 자본관리 수단 · 보험계약가치(Value In Force)의 자본화(Monetization) · 파생금융상품(국채선물, 금리스와프, 장기 선도채권 등) 활용	

- 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부채의 규모 또는 보험부채에 내재된 보험 및 금리위험을 재보험회사에 이전함으로써 가용자본을 확대하거나 요구자본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최근의 재보험은 고유위험의 풀링(Pooling)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s)- 장수위험, 금리위험 및 추가위험 -을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전통적인 재보험은 원수보험회사의 고유위험을 제3자인 재보험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s)의 풀링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함
- 최근 금융당국도 금리위험을 재보험회사에 이전해 부채 듀레이션을 줄이는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재보험의 역할이 요구자본뿐만 아니라 가용자본의 관리 수단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 지급여력조치 강화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여 보험회사의 여유자본이 부족한 경우, 보험계약가치(Value In Force)의 자본화(Monetization)는 가용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음

-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는 미래에 발생하는 보험이익을 할인된 현재가치의 금액으로 유동화하여 가용자본을 신규로 창출하는 것임¹⁾

- 보험계약가치를 자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 특별목적회사에 이관하여 미래 보험이익의 가치를 유동화 또는 증권화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전망됨
- 은행을 통한 자금차입은 현행 감독규정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임
- 보험이익의 현재가치는 최근 2~3년에 발행된 보험계약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보험회사의 매도 의향, 자본공급자의 매수 성향, 감독자의 가용자본의 인정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수익성이 높고 최근 발행된 보험계약을 보유한 (대형)보험회사일수록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 가능성이 높음

■ 이와 더불어 요구자본의 경감 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국채선물, 금리스와프 등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할 경우 이를 RBC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RBC 제도에서는 금리파생상품을 통해 보험부채의 금리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장기 선도채권 활용을 통하여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방안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kiri](#)

11) 유럽연합의 SolvencyII에서도 이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음

〈부록 표 1〉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의 변화 추이와 향후 계획

시점	주요 내용
1994년	고정금액방식의 지급여력제도 실시
1999년 3월	EU 방식의 지급여력제도 도입
2009년 4월 (2011년 4월)	RBC 제도 도입 및 2년간 시범운영 후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신뢰수준 95%)
2014년 12월	1) 금리위험액 측정 시 신뢰수준 95%에서 99%로 상향 2) 리스크요인 간 상관계수 정교화
2015년 12월	신용위험액 측정 시 신뢰수준 95%에서 97%로 상향(1차 50% 반영)
2016년 10월	1) RBC 비율 산정 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여 자회사의 노출리스크를 반영 2) 신용위험액 산출 시 신뢰수준 97%에서 99%로 상향(2차 50% 반영)
2017년 5월	K-ICS 도입 전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 1)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 확대(25년, 30년 구간 신설) 2) 연동형보험 공시이율 현실화(공시기준이율에서 신용스프레드 차감) 3)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 변경(고정위험계수 방식 → 확률론적 방식) 4)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리스크 반영
2018년 4월	IFRS 17 도입에 대비하여 K-ICS(1.0)초안 마련 1) 가용자본(자산 및 부채) 완전 시가평가 2) 요구자본 측정 시 신뢰수준 99.5%로 상향 3)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는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으로 산출
2018~2021년	IFRS 17 및 K-ICS 영향 평가, 의견 수렴 등 연차록 방안 검토
2022년(예정)	IFRS 17 및 K-ICS 시행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 7. 31, 2016. 3. 30, 2017. 5. 31, 2018. 4. 5); 금융감독원, 『RBC 제도 해설서』

〈부록 표 2〉 2018년 보험회사 자본확충 현황

(단위: 원)

업종	조달 방식	회사명	금액	업종	조달 방식	회사명	금액
생명 보험 회사	신종 자본증권	한화생명	1조 673억	손해 보험 회사	신종 자본증권	한화손보	1,900억
		KDB생명	2,160억			현대해상	5,000억
	후순위채	KDB생명	2,200억		후순위채	메리츠화재	1,000억
		현대라이프생명	600억				
		DGB생명	500억				
		동양생명	1,000억				
		DB생명	1,410억				
		신한생명	5,926억				
		미래에셋생명	2,000억				
총액			2조 6,469억	총액			1조 2,600억

자료: 각사 분기보고서(9월); 연합뉴스포맷스